

# 독재 맞서 민주화 한 길...여·야 애도 한마음

## 입원에서 서거까지

19일 고열·호흡곤란으로 입원  
패혈증·급성심부전 겹쳐 22일 서거  
2008년 뇌졸중·2013년 반신불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입원했다가 22일 새벽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서울대병원의 오병희 원장은 이날 새벽 병원 본관 앞 대한의원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막힌 부분이 있어 과거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며 "이런 패혈증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겹쳤을 때 심장이 함께 악화돼 사망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과거 병력에 대해 "고인께서는 2008년부터 작은 뇌졸중이 있었고 이후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및 폐렴 등으로 수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졸중과 폐렴으로 입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원래 스텐트 수술도 받으셨고, 혈관병이 많으셨다"며 "뇌졸중도 결국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며, 지병이 악화돼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정오께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상태가 나빠져 21일 오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오 원장은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입원할 때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보고

## 김 전 대통령 입원부터 서거까지

11월10일~17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에  
검진차 입원 및 퇴원

19일 정오께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

21일 오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22일 오전 0시22분  
서거 (사인, 패혈증과 급성심부전)

연말뉴스

김 전 대통령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 특별한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오 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정확한 서거 시각을 22일 0시22분이라고 확인했다.

서거 당시 김 전 대통령 옆에는 차남 현철씨 등 가족이 모두 모여 임종했으며, 자신을 비롯한 의료진이 옆에 있었다고 오 원장은 전했다. 다만, 손명순 여사는 곁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날 새벽 서울대병원은 정적 속에서 급박하게 움직였다. 전날 밤늦은 시각부터 김 전 대통령이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병원에는 김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병원도 직원을 배치해 외부인의 중환자실 출입을 통제했고, 일부 병원 직원들이 급박하게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그러다 이날 0시46분 김 전 대통령이 끝내 서거했다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다.

즉시 새벽 2시에 김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오병희 병원장이 직접 서거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연다는 공지가 언론사에 전달됐다.

삼시간에 언론사 취재진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에 도착해 취재 경쟁을 벌였고,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국내를 넘어 외신을 통해 외국에도 전파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말뉴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로구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말뉴스

## 반기문 “경제·사회 과감한 개혁 이룬 분” 문재인 “민주주의 정치 철학 우리의 몫”

### 각계 조문 행렬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22일 아침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 여야를 막론한 정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김수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상동동계 인사'들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등이 이날 오전 서울 중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일제히 찾았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정치지도자였고 위대한 개혁을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이날 예정된 정치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최고위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최재천 정책위의장, 김성수 대변인 등이 빈소를 방문, 애도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

했으며 아련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오는 23일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은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이룩하신 분"이라며 애도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23일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빈소를 찾을 예정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길을 넓힌 지도자"라며 명복을 빌었다.

이밖에도 문민정부 시절 당정청의 요직에서 일했던 문정수 전 부산시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종하 전 무무장관, 오정호 전 보건처장, 정재문 전 의원, 유도재 전 총무수석 등이 오전 빈소를 찾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태희·맹형규 전 대통령실장, 김효재 전 정부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주요 외신 서거 소식 타전

NYT "한국 문민정부 세운 인물"  
WSJ "외환위기로 따가운 비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일제히 서울발 긴급기사로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김영삼 한국 전 대통령, 87세 나이로 서거'라는 제목으로 김 전 대통령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NYT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소개하며 1960~1980년대 군부독재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한 인물이었으며 군부 정권이 아닌 문민정부를 세운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또 고인이 1979년 자사와의 인터뷰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했다가 의원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22일 NYT 뉴욕판 지면에도 실릴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모두 소개하며 문민시대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열었음에도 1997~1998년 외환위기로 따가운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각국 통신사들도 발 빠르게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2일 새벽 1시7분(서울시간)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김영삼 전 한국 대통령 서거'라는 짧은 제목으로 첫 기사를 내보냈다.

연말뉴스

## 박 대통령 “깊은 애도...예우 갖춰 장례 준비할 것”

### 東亞정상회의 참석 말聯서 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들의 뜻을 살피고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갈라 만찬 행사를 마친 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바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23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며, 국내 도착 이후 빈소를 직접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26일 국회에서 거행되는 영결식에도 참석할 전망이다.

2009년 8월18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흘 뒤인 21일 DJ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23일 국회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조문을 한 것은 2013년 5월 고(故) 남덕우 전 총리 빈소 방문, 올해 2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자 자신의 사촌인 고(故) 박영옥 여사 빈소 방문, 지난 3월 리관유(李光燾)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國葬) 참석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4월에는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편을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행동 방향  
상무지구 방향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5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전형일 : 2016. 1. 5(화)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대 학 원	과 격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5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5. 11. 23(월) ~ 25(수) •전형일 : 2015. 11. 27(금)

활음이 있는 대학, 활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도시 36